

玉所の 문집 편집 구상과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

최 호 석**

- I. 서론
- II.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草稿本 『玉所稿』의 현황
- III.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과 그 의의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초고본 『옥소고』 「산록내편」의 기록을 근거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살펴보는 한편, 20세기 초에 석인본으로 간행된 『玉所集』을 검토하면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산록내편」의 기록을 토대로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의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 교원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21년 10월 22일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제목을 비롯하여 본문의 주요 내용까지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과 심사로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학술대회 발표 시 제목은 다음과 같다. 「옥소의 문집 편찬 구상과 「시 상」·「시 중」에 대하여」,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77-106.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chs414@pknu.ac.kr

현황을 살펴보았다. 옥소는 「산록내편」에서 자신의 글이 40여권 19종 있다고 하였는데, 이 글의 대부분은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글을 가지고 7가지의 문집 편집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시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초고본에 실린 글을 그대로 두기.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는 「기몽」, 「화몽」, 「가곡」, 「유행」, 「문답」, 「묘산」, 「정각」, 「필찰」, 「추명지」가 있다. 둘째, 초고본에 실린 글 가운데 좋은 글들만 골라내기.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는 「산록외편」, 「잡록」, 「문」, 「잡저」, 「창수」, 「시」가 있다. 셋째, 초고본에 실린 글이지만 문집에 신지 말고 따로 분류하기.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는 「산록내편」, 「잡의」, 「잡지」가 있다. 넷째, 모두 버리기. 여기에 해당하는 글로는 「정식」이 있다.

Ⅲ장에서는 1938년에 13권 7책의 석인본으로 간행된 『옥소집』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옥소집』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옥소가 문집에 그대로 남겨 두라고 한 「기몽」, 「화몽」, 「가곡」 등의 글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하지 않은 반면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정식」은 『옥소집』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시」의 경우 작품의 배열 순서가 어긋난 경우가 많았으며, 「묘산」이나 「정각록」에 수록된 글을 문체별로 다시 정리하여 본래 글의 특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옥소의 국문문학 전체가 누락된 것은 『옥소집』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소집』은 필사본으로만 전하던 옥소의 글이 최초로 인쇄본으로 간행된 문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 전하지 않는 상당수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주제어

옥소, 권섭, 『옥소고』, 『옥소집』, 초고본, 자편문집, 석인본

I. 서론

박요순이 197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玉所 權燮(1671~1759)과 그의 국문시가를 소개한 이래¹⁾, 옥소에 대한 연구는 그의 가사와 시조 등의 국문시가에 집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최호석이 옥소의 소설 한역(漢譯) 문제를 다루고²⁾, 이창희가 문경박물관에 소장된 <몽화(夢畵)>를 번역하는 한편³⁾, 황경일이 옥소의 산수 산문을 다루면서 옥소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⁴⁾ 그리고 이창희·장정수·최호석이 필사본 『옥소고』를 영인 간행하고⁵⁾, 이창희 등이 2권의 연구서를 펴내면서 옥소 연구는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⁶⁾ 이후 옥소와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유행록과 몽기(夢記) 등의 산문, 그리고 한시로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호석은 일찍이 제천본과 문경본으로 명명한 옥소의 필사본 원고 2종과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석인본 문집 1종을 대상으로 각각의 현황과 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다.⁷⁾ 거기에서 최호석은 제천본이 완성(完整)한 형태의 원고가 아니라, 옥소의 문집을 편집하기 위하여 작품을 전부 수집, 정리한 초고본이며, 문경본은 제천본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편집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옥소의 문집에 대한 이해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천본과 문경본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그리고 필사본 『옥

-
- 1) 박요순, 「옥소 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박요순, 『玉所權燮의 詩歌研究』, 탐구당, 1987.
 - 2)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古小說 研究』,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 3) 이창희 역,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옥소의 꿈세계』,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4) 황경일, 「玉所 權燮의 山水 散文 研究 : 「海山錄」과 「夢記」를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2004.
 - 5) 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옥소고 1-17』(영인),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6) 이창희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도서출판 다운샘, 2007; 이창희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7)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도서출판 다운샘, 2007.

소고』가 문집을 편집하기 위하여 일차로 정리한 초고본인 만큼, 실제 옥소는 자신의 문집을 어떻게 편집하려고 하였을지 궁금하기만 하다.

최근 이창화·장정수가 「산록내편」의 번역본을 간행하면서 옥소의 문집 편집과 관련한 새로운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⁸⁾ 이에 본고에서는 『옥소고』 「산록내편」의 기록을 검토하면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석인본으로 간행된 『옥소집(玉所集)』을 검토하면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草稿本 『玉所稿』⁹⁾의 현황

최호석이 선행연구에서 초고본 『옥소고』의 현황을 제시한 이후 한동안은 옥소 문집 자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최근 권혁대는 『옥소고』 영인본의 각 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는 한편 옥소의 한시 작품 현황을 언급하면서 “「散錄內編 三」에서 자신의 문집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詩는 13권이라고 했다.”¹⁰⁾라고 하였다. 이때 그가 인용한 「산록내편」의 기록은 “吾之私稿 凡四十餘卷(中略) 詩則十三卷中 自抄之作七八卷 抄中又抄 爲數三卷 又抄中又精抄 則可無欠”이다. 그는 여기서 밑줄 친 부분, 즉 ‘시는 13권’이라는 것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그가 중

8) 이창화·장정수 역, 『산록내편』, 도서출판 다운샘, 근간.

9) 최호석은 옥소의 필사본 원고 2종, 즉 체천본과 문경본 『옥소고』를 옥소의 문집을 편집하기 위하여 작품을 수집, 정리한 초고본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필사본 옥소고’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간 ‘필사본 옥소고’로 부르던 「詩上」의 올바른 명칭은 『玉所稿』 「上」이며, 이는 옛길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玉所稿』 「中」과 함께 옥소의 자편문집이라고 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옥소의 자편문집인 『옥소고』 「상」「중」을 제외한 필사본 『옥소고』를 ‘초고본 『옥소고』’, 혹은 ‘초고본’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옥소가 처음으로 묶은 초고본 『옥소고』는 현전하지 않으며, 여기서 초고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최초의 초고본 『옥소고』를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10) 권혁대, 「玉所 權變의 漢詩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1, 64~67쪽.

략한 부분에는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관련한 내용이 더 있었으며, 위에서 인용한 「산록내편」의 원문에는 옥소의 시고(詩稿)와 관련한 기록이 더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밑줄 친 부분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문집 편집에 대한 옥소의 구상을 이해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권혁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하였던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은 최근 이창희·장정수가 「산록내편」을 번역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인용한 뒤에 옥소가 구상한 문집의 편집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모두 40권이 넘는 내 글 가운데 ① 「산록내편(散錄內編)」과 「잡의(雜儀)」와 「잡지(雜識)」만은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이니 따로 분류해 두는 것이 좋다. ② 「기몽(記夢)」과 「화몽(畫夢)」, 「가곡(歌曲)」과 「유행(遊行)」, 「문답(問答)」과 「묘산(墓山)」, 「정각(亭閣)」 등의 글은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③ 「산록외편(散錄外編)」과 「잡록(雜錄)」과 「문(文)」, 「잡저(雜著)」 등은 좋은 글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좋고, ④ 「필찰(筆札)」과 「추명지(推命紙)」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⑤ 「창수(唱酬)」는 골라내고 나머지를 버려도 좋고, ⑥ 「정식(程式)」은 모두 버려도 좋다. ⑦ 「시(詩)」는 13권 가운데 내가 스스로 골라내어 7~8권을 만들었는데 이 중에 골라내고 또 골라내서 두세 권으로 만든 다음 다시 골라낸 것들 중에 또 정밀하게 골라야만 흠결이 없게 될 것이다. 덕성(德性)과 선성(善性) 부자가 조응(祚應)과 함께 깨끗이 정돈하여 한 질을 만들어, 전하여 보여 줄 만한 사람에게 전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모두 환지(還紙)로 만들어 굴뚝이나 벽을 바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천과 화지에 각각 한 부씩 두되 한천에 둔 것은 도중(道中)이 글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잘 지켜서 사당 안에 보존해야 한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글들을 태우려고 했으나 아이들이 만류하여 여기 한적한 곳에 보관해 둔다. 아, 대대로 글공부를 한 집안인데 나에 이르러 이렇게 노둔하게 되었으니 이 운명을 어찌하겠는가. 하늘에 묻고 싶어 울면서 슬퍼한다.¹¹⁾

11) “吾之私稿 凡四十餘卷 唯散錄內編雜儀雜識 有益於後孫 可分類 記夢畫夢歌曲遊行問答墓山亭閣 可勿動而留之 散錄外編雜錄文雜著 可抄刪 筆札推命 可仍留 唱酬可抄刪 程式可全削 詩則十三卷中 自抄之作七八卷 抄中又抄 爲數三卷 又抄中又精抄 則可無欠 德性善性父子 可與祚應 梳洗整頓 而作一帙 傳示於可傳示者 餘皆作還紙塗埃壁 可也 寒泉華支 各置一件 在寒泉者 道中雖不學 亦必善守可藏之於祠堂中 吾欲臨死而焚

옥소가 위의 글을 남긴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¹²⁾ 인용문에 따르면 그때까지 그는 40권이 넘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19종에 해당하는 자신의 글을 밑줄 친 것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처리 방안은 곧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그가 ‘깨끗이 정돈하여 한 질을 만들어, 전하여 보여 줄 만한 사람에게 전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한천과 화지에 각각 한 부씩 두’라고 한 것은 완성된 자신의

稿 爲兒輩所止 爲此閑處置 嗚呼 以世代文學之家 至我身而魯莽如此 命也奈何 欲問天而鳴悞”, 「산록내편」 3, 이창화·장정수 역, 『옥소산록』, 도서출판 다운샘. 근간. 위의 번역문에서 ①~⑦은 필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붙인 것이다.

- 12) 옥소는 만년에 자신의 시고(詩稿) 14권을 가지고 『玉所稿』 「上」·「中」의 자편문집 2권을 만들었다. 현재 제천본 시고는 제15권까지 전하는데, 「시 15」에는 그의 나이 87, 8세 때인 1757~1758년에 지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옥소고』 「중」에는 「시 15」에 실린 작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지은 시, 즉 그의 나이 89세 곧 그가 세상을 떠난 1759년에 지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수록 현황을 가감안할 때 제천본 시는 「시 16」까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편문집 『옥소고』 「중」의 마지막 작품 제목에는 시고 14권 가운데서 가려뽑아 2권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때 옥소는 「산록내편」에 시 13권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긴 이후에 시 1권을 더 창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천본 시고(詩稿)가 다 전하였다면 16권 분량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옥소고』 「중」의 제목에 시가 14권 있었다는 것과 어긋난다. 이와 같은 차이는 본디 옥소고의 초고본 시는 14권으로 정리되었으나 그것이 제천본과 문경본으로 다시 필사되면서 작품 수와 관계없이 권수(卷數)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애초의 초고본 『옥소고』는 전승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는 애초의 초고본을 필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애초의 초고본의 시고와 제천본 시고의 분량을 감안할 때 시 13권이 있다는 「산록내편」의 기록은 제천본 「시 15」에 수록된 작품들을 창작하기 전인 1756~1757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최호석이 소개한 『옥소고』 「중」에 수록된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시고 14권 중에서 시를 가려 뽑아서 2권을 만들었는데, 20세 전후에 지은 시 2책 가운데 절반 넘게 뽑았고, 80세 이후에 지은 시 2책 가운데서도 절반 넘게 뽑았다. 그 사이에 지은 시 10책 가운데서는 각각 10여 수를 뽑았는데, 한창 때에 지은 것이 가장 어렸을 때 지은 것, 가장 늙었을 때 지은 것과 어찌 그렇게도 다른지. 이에 웃으며 시 한 수를 짓는다.(詩稿十四卷中抄作二帙 二十歲上下二冊太半抄之 八十歲以下二冊太半抄之 中間十冊中各抄十餘首 何其盛壯時作與最少最老時大不同也 笑題一詩)> 옥소의 자편문집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최호석, 「옥소의 자편문집 『玉所稿』 「上」·「中」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문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은 글의 처리 방안을 지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집을 엮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심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용문의 뒷부분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글들을 태우려고’ 한 데서 보듯이 옥소는 대대로 글공부를 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의 글에 대하여 불만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옥소가 글을 태우려고 하기 전에 옥소가 자신의 글을 모두 모았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옥소가 자신이 평생 짓고, 주고받은 글을 모두 수집, 정리하여 초고본 『옥소고』를 엮은 것은 문집의 편찬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자(次子)인 덕성, 삼자(三子)인 선성과 그의 아들 신응, 적장손(嫡長孫)인 조응에게 자신의 글을 깨끗이 정돈하여 한 질을 만들라고 한 것은 문집 편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다.

「산록내편」에서 옥소가 제시한 문집의 편집 구상에 따라 글을 분류하고, 그에 대응하는 초고본 『옥소고』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초고본 『옥소고』의 현황

분류		제천본	문경본
①	散錄內編	「산록내편 1, 3」	
	雜儀	「잡의 1」	「잡의 1」
	雜識	「잡지」	
②	記夢	「몽기」	「몽기」
	畫夢	화몽	화몽
	歌曲		「가곡」
	遊行	「유행록 2, 4-1, 4-2」	「유행록 2, 3」
	問答	「문답 2, 3, 5」	「문답 4」
	墓山	「묘산 1, 2, 3」	
	亭閣	「정각록」	
③	散錄外編	「산록외편 1, 2」	
	雜錄	「잡록 1」	
	文	「문 1, 3, 4, 5, 6」	「문 3, 5」
	雜著	「잡저 1, 2, 3, 4, 6」	「잡저」

④	筆札	「필찰 1, 2」	
	推命		「추명지」
⑤	唱酬	「봉유창수 2, 3, 4, 5-1, 5-2」	「봉유창수 2, 5」
⑥	程式		「정식」
⑦	詩	「시 1, 2, 3, 8, 9, 10, 11, 12, 13, 14, 15」	「시 1, 5, 9, 12」
비고			「私稿 5」, 「私集 2, 3」, 「玉所藏畧」, 「兒曹要覽」

<표 1>에서 보듯이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는 「산록내편」, 「유행록」, 「문답」, 「문」, 「잡저」, 「봉유창수」, 「시」 등에서 부분적으로 빠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옥소가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정식」을 포함하여 위에서 인용한 「산록내편」의 기록에서 옥소 자신이 언급한 거의 모든 글이 조금씩은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관련하여 <표 1>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옥소는 앞서의 인용문에서 ①「산록내편」, 「잡의」, 「잡지」는 따로 분류해 둘 것(「可分類」)을 지시하였다. 이 말은 「산록내편」 등을 자신의 문집에 수록하지 말고 독립된 책으로 모아두라는 것으로 보인다. 영인본 『옥소고』 11권에 수록된 「옥소장계(玉所藏畧)와 「아조요람(兒曹要覽)의 경우 ‘옥소고’라는 표제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책으로 전하는데, 「산록내편」 등도 이와 같이 옥소의 문집 『옥소고』에 묶지 말고 문집과는 별개로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할 것을 원한 것 같다. 한편 「잡지」는 제천본에 한 권이 전해지고 있으며, 「산록내편」은 1권과 3권이 전해지고 2권은 전하지 않는다. 「잡의」의 경우 제천본과 문경본에 모두 「雜儀 一」이라고 한 것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그것 외에도 한 두 권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니, 그 실상은 알 수 없다.

옥소는 두 번째로 ②「기몽」, 「화몽」, 「가곡」, 「유행」, 「문답」, 「묘산」, 「정각」은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둘 것(「可勿動而留之」)을 지시하였다. 이 말은 곧 「기몽」 등의 글은 문집에 그대로 수록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

인다. 그중 「기몽」, 「화몽」, 「가곡」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제천본에는 「기몽」과 「화몽」이 「잡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가곡」은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 제천본 「잡록」에 수록된 「기몽」과 「화몽」의 앞부분에는 각각의 서문이 있으며, 「기몽」에는 ‘記夢’이라는 內題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문경본에는 「기몽」, 「화몽」, 「가곡」이 모두 「추명지」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 글의 앞부분에는 제천본과 마찬가지로 서문이 모두 있다. 그리고 「기몽」과 「가곡」에는 각각의 내제가 기록된 반면 「화몽」에는 내제가 없다. 이처럼 다른 글들과 달리 「화몽」의 내제가 없는 것은 옥소 당대에 처음으로 수집 정리된 초고본을 다시 필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보인다. 그리고 「유행록」과 「문답」 등의 글은 부분적으로 분실된 반면, 「묘산」과 「정각」은 초고본의 내용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소는 세 번째로 ③「산록외편」, 「잡록」, 「문」, 「잡저」 등에서는 좋은 글들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릴 것(‘可抄刪’)을 명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4가지 글 가운데 「문」과 「잡저」 등의 글은 일부가 빠지기는 하였지만 꽤 많은 분량이 전하고 있으며, 「산록내편」과 「잡록」은 초고본의 상태로 온전히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의 「잡록」은 옥소가 「산록내편」에서 말한 「잡록」이 아니다. 「산록내편」의 기록을 살펴보면 「잡록」은 「몽기」나 「화몽」과는 구별되는 글인데, 제천본 「잡록」은 「몽기」와 「화몽」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옥소가 「산록내편」에서 언급한 「잡록」은 현전하지 않으며, 현전하는 「잡록」은 본래의 「잡록」이 없어진 뒤에 후손이 임의로 엮은 것이라고 하겠다.

옥소는 네 번째로 ④「필찰」과 「추명」은 그대로 둘 것(‘可仍留’)을 명하였다. 그중 「추명」은 문경본 「추명지」에 수록되었으며, 「필찰」은 2권이 제천본에 전하고 있다.

옥소는 다섯 번째로 ⑤「창수」의 경우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可抄刪’) 하였다. 현재 「봉유창수」는 1권이 없이 5권까지 전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양은 많은 반면 좋은 작품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옥소는 여섯 번째로 ⑥「정식」은 모두 버려도 좋다고(‘可全削’) 하였다.

「정식」이 과거 시험에 적합한 형식의 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옥소가 「정식」을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것은 아마도 그가 한때나마 과거에 뜻을 두었던 것을 후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옥소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식」은 「추명지」에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옥소는 ⑦자신의 시 13권 가운데 스스로 골라내어 만든 7~8권을 다시 고르고 골라내라고(「詩則十三卷中 自抄之作七八卷 抄中又抄 爲數三卷 又抄中又精抄」) 하였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시를 골라내고 또 골라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시에 대하여 불만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³⁾ 옥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산록내편」에 남긴 뒤에도 시를 더 짓는 한편 문집 편집에도 관여하여 시로만 이루어진 자편문집 『玉所稿』 「上」·「中」을 엮었다.¹⁴⁾

그 외 「산록내편」에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옥소고』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는 「사고 5」, 「사집 2」, 「사집 3」이 있으며, 『옥소고』라는 표제가 없는 것으로 「옥소장계」와 「아조요람」등이 전하고 있다. 그중 「사고」와 「사집」은 옥소의 시를 싣고 있으며, 「옥소장계」에는 이이의 시조 <고산구곡가>와 그것의 한역시 등을 수록하였으며, 「아조요람」에는 일상 예절과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글들이 앞에서 인용한 「산록내편」의 기록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옥소가 「산록내편」의 글을 기록한 뒤에 묶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옥소는 「산록내편」에서 자신의 글 19종을 대상으로 7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초고본 『옥소고』를 대상으로 한 그의 편집 방식은 결국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은 문집에 그대로 둘 것을 원하였는데, 이는 앞서

13) 옥소는 자편문집 『옥소고』 「중」에 수록된 시에서 20세 이후 ~ 80세 이전에 시를 많이 지었지만, 그 시기에 지은 시가 불 만한 것이 없다고 후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최호석, 「옥소의 자편문집 『玉所稿』 「上」·「中」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14) 최호석, 같은 글.

인용한 「산록내편」과 <표 1>의 ②, ④에 제시한 「기몽」, 「화몽」, 「가곡」, 「유행」, 「문답」, 「묘산」, 「정각」, 「필찰」, 「추명」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글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문집에 수록할 것을 명하였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글은 좋은 글들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릴 것을 원하였는데, 여기에는 ③, ⑤, ⑦에서 제시한 「산록외편」, 「잡록」, 「문」, 「잡저」, 「창수」, 「시」를 들 수 있다.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글들은 그 양이 방대한데, 옥소는 그 가운데서 질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선별하여 문집에 수록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옥소는 다음과 같은 글은 문집에 수록하지 말고 별도로 전하기를 원하였는데, 여기에는 ①의 「산록내편」, 「잡의」, 「잡지」와 같은 글이 있다. 마지막으로 옥소는 ⑥「정식(程式)」의 경우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과거에 대한 옥소 자신의 회의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Ⅲ.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과 그 의의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옥소는 자신이 평생 지은 글을 모두 수집, 정리하여 이를 초고본 『玉所稿』로 정리하였다. 그는 「산록내편」을 통하여 자신의 문집 편집 구상을 밝혔지만, 그의 구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옥소는 만년에 자신의 시를 대상으로 자편문집 『玉所稿』 「上」·「中」을 엮기도 하였지만, 옥소 당대는 물론 사후에도 한동안 옥소의 문집은 간행되지 못한 채 초고본 『옥소고』와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이 같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후 1938년에 옥소의 10세 종손인 권희만(權熙萬)이 초고본 『옥소고』와 자편문집 『옥소고』를 이용하여 『玉所集』이라는 제목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鳳陽面) 신리(新里)에서 13권 7책의 석인본(石印本)으로 간행하였다. 『옥소집』의 현황과 그것의 출전을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옥소집』의 현황과 출전

책	『玉所集』		『玉所稿』
1	권 1	詩 260제	「상」 204, 「중」 37, 「시 3」 2, 「시 8」 6, 「시 13」 5, 「시 14」 1, 미상 5
2	권 2	詩 101제	「중」 92, 「시 8」 1, 「시 5」 1, 「정각록」 2, 미상 5
		賦 3제	「잡저」 1, 미상 2
	권 3	疏 2편	미상 2
		啓 2편	「잡저 4」 1, 미상 1
3	권 4	書 37편	「문답 2」 15, 「문답 4」 4, 미상 18
		書 15편	「문답 2」 5, 「문답 4」 5, 「문답 5」 2, 미상 5
	雜著 43편	「문 1」 6, 「문 4」 2, 「문 3」 2, 「잡저 1」 6, 「잡저 2」 5, 「잡저 3」 9, 「잡저 4」 2, 「필찰 1」 1, 「정각록」 1, 미상 9	
권 5	散錄內篇 1	「산록내편」	
4	권 6	散錄內篇 2	「산록내편」
		散錄外篇	「산록외편」
권 7	雜儀 11편	「잡의 1」 10, 미상 1	
5	권 8	遊行錄 3편	「유행 2」 1, 미상 2
		序 9편	「문 1」 5, 「문 4」 1, 「묘산 2」 1, 미상 2
	권 9	記 93편	「문 1」 29, 「문 3」 12, 「문 4」 8, 「문 5」 1, 「정각록」 8, 「잡저 3」 2, 「옥소장계」 1, 미상 32
6	권 10	題跋 61편	「문 1」 15, 「문 3」 3, 「문 4」 15, 「문 5」 2, 「잡저 2」 1, 「잡저 3」 1, 「잡저 4」 1, 「필찰 1」 1, *「옥소장계」 2, 미상 20
		銘 46편	「잡저 1」 2, 「잡저 2」 7, 「잡저 3」 3, 「잡저 4」 6, 「잡저 6」 1, 「정각록」 7, 미상 20
		贊 12편	「잡저 1」 5, 「잡저 2」 2, 「잡저 3」 4, 미상 1

玉所의 문집 편집 구상과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최호석)

	권 11	告文 24편	「문 1」 1, 「문 3」 1, 「문 4」 2, 「잡저 1」 10, 「잡저 2」 2, 「잡저 3」 3, 「잡저 4」 1, 미상 4
		祝文 4편	「잡저 2」 1, 「잡저 3」 1, 「정각록」 1, 미상 1
		祭文 41편	「문 1」 2, 「문 3」 1, 「문 4」 1, 「잡저 1」 10, 「잡저 2」 5, 「잡저 3」 3, 「잡저 4」 5, 「잡저 6」 1, 미상 13
		哀辭 26편	「문 1」 2, 「문 3」 1, 「문 4」 10, 「잡저」(문경본) 1, 「잡저 3」 3, 「잡저 4」 4, 미상 5
7	권 12	庭碑銘 2편	「문 1」 1, *「옥소장계」 1
		墓碣銘 4편	「문 6」 2, 「묘산 2」 1, 미상 1
		墓誌銘 25편	「문 4」 2, 「문 5」 4, 「묘산 1」 1, 「묘산 2」 9, 「묘산 3」 2, 「잡저 2」 1, 미상 6
	권 13	墓表 13편	「문 1」 1, 「문 4」 5, 「문 5」 1, 「묘산 2」 3, 「묘산 3」 1, 미상 2
		行狀 7편	「문 3」 3, 「문 5」 1, 「묘산 2」 2, 미상 1
		遺事 4편	「문 4」 1, 「잡저 3」 1, 「잡저 4」 2
		傳 2편	「문 1」 1, 미상 1
年譜 1편	「묘산 2」 1		
跋文 3편			

<표 2>는 석인본 『옥소집』의 권책별 글의 종류와 편수, 그리고 각 글의 출전과 출전별 수록 작품 수를 정리한 것이다.¹⁵⁾ 여기에서 보듯이

15) <표 2>에서 『玉所集』 권4 「書」 15편의 출전을 「문답 2」 5와 같이 쓴 것은, 『옥소집』 「書」에 실린 15편의 글 가운데 5편이 초고본 「玉所稿」 「문답 2」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권1과 권2의 「詩」의 출전을 옥소의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을 중심으로 한 것은 『옥소집』에 실린 시가 「상」·「중」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출전을 「미상」으로 표시한 것은 필자가 그 출전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중 일부는 제목을 현저히 바꾸어서 필자가 미처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나머지는 현전하지 않는 초고본 『옥소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인본 『玉所集』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간본 문집과 같이 옥소의 글을 운문과 산문으로 구분하였다. 운문은 시체(詩體)는 구분하지 않고 창작 연대 순으로 실었으며, 산문은 문체별로 수록을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초고본이자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던 옥소의 글들은 제대로 된 문집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며, 하나의 텍스트로서 옥소의 문집이 확정되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옥소가 세상을 떠난 지 180년만에 간행된 그의 문집은 그가 「산록내편」에서 밝혔던 문집 편집의 구상을 얼마나 잘 실현하였을까?

II장에서 살펴본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염두에 두고 석인본 『옥소집』의 실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옥소가 문집에 그대로 두라고 한 「記夢」, 「畫夢」, 「歌曲」, 「遊行」, 「問答」, 「墓山」, 「亭閣」, 「筆札」, 「推命」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기몽」과 「화몽」은 옥소가 자신의 꿈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것인데, 이는 옥소의 문학예술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곡」은 2편의 가사와 75수의 시조를 수록한 것으로, 국문학사를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몽」과 「화몽」, 「가곡」에 실려 있는 것들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遊行(錄)」의 경우 『옥소집』 권8 「유행록」에 <南遊記(1700)>와 <華陽俗離選勝記(1701)>, 그리고 <海山錄(1709)>이 수록되었다. <남유기>와 <화양속리선승기>는 현전하지 않는 초고본 『옥소고』 「유행록 1」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본 『옥소고』의 「유행록 2」에는 <해산록>이 7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옥소집』에 수록된 <해산록>은 그중 앞의 3편만을 수록하였으며 그 분량 또한 초고본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초고본 「유행록 3」과 「유행록 4」는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현전하지 않는 『옥소고』 「유행록 1」의 일부분을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소집』의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옥소가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한 「유행록」의 상당수를 누락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問答」은 옥소와 가족, 친지, 지인 간에 어떤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편지글로, 『옥소집』 권 3, 4의 「書」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초고본 『옥소고』의 「문답」에서는 그때그때 주고받은 편지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과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편지글이 앞뒤로 여러 곳에 걸쳐 분산되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옥소집』에서는 이러한 글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옥소집』에서는 한 군데에 모인 글들이지만, 그것들이 본래 수록되어 있는 초고본의 출전은 다른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리고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 「문답」에 전하지 않는 글도 다수 전하고 있는데, 이는 현전하지 않는 「문답 1」, 「문답 4」에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예법과 관련한 옥소의 글이 있는 초고본 『옥소고』 「문답 3」의 내용이 『옥소집』에는 하나도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법과 예를 중시하는 옥소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해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墓山」은 <표 2>에서 보듯이 『옥소집』 권8의 「序」¹⁶⁾, 권 12의 「墓碣銘」과 「墓誌銘」, 「墓表」, 그리고 권13의 「行狀」 등에 문체별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 「묘산 1, 2, 3」은 총 21곳의 葬地를 세부 항목으로 하여 편제되었는데, 최원석에 의하면 묘산의 “체제는 각 葬地 별로 앞부분에 山圖와 葬地의 풍수적 입지에 관한 개설 및 옥소의 感評이 附記되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앞부분에 해당 葬地 인물의 墓碣陰記, 行狀記, 神道碑銘, 墓誌 등을 덧붙여 편집하기도 하였다. 이어 山課, 山辯, 山兆, 山占, 葬時記 등 葬時 葬後の 잡록을 수록하였다.”¹⁷⁾ 이에 따르면 「묘산」은 하나의 장지에 대한 여러 개의 글이 모여 그보다 더 큰 하나의 글을 이루는 형식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옥소집』에서는 「묘산」의 이러한 형식을 깨트리고 문체별로 몇 개의 글만 가져왔다.

「亭閣」 또한 「묘산」과 같이 여러 곳에 분산 수록되었는데, 초고본 「정

16) 여기에는 <述懷詩序> 하나만 있는데, 초고본 『옥소고』에는 <述懷詩敍>로 되어 있다.

17) 최원석, 「조선후기 지식인의 풍수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이창희 등, 『18세기 예술사 회사와 옥소 권섭』, 도서출판 다운샘, 2007, 205쪽.

각록」에 수록된 글들은 문체에 따라 『옥소집』 권 2의 「詩」, 권 4의 「잡저」, 권 9의 「記」, 권 10의 「銘」, 권 11의 「祝文」에 수록되었다. 그런데 「정각록」은 건물에 대한 글이라는 구심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초고본 「정각록」에는 문체와는 관련이 없이 건물과 관련한 글을 실었던 만큼 누정기(樓亭記)와 상량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체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런데 『옥소집』에서는 이를 문체별로 분리하여 「정각록」에 수록된 글을 각각의 문체에 맞게 분산 수록하였다.

「筆札」과 「推命」의 경우 앞선 글들과 달리 『옥소집』에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필찰」의 경우 『옥소고』 「필찰 1」에 수록된 <百趣翁六十一壽序>가 『옥소집』 권 4 「잡저」에 <謝邊叔建爲我六十一壽序文>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옥소고』 「필찰 1」의 <題奇勝帖後>가 같은 제목으로 『옥소집』 권 10 「題跋」에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초고본의 「필찰」은 단 두 편만이 『옥소집』에 수록되었을 뿐이다. 심지어 「추명」의 경우에는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옥소가 좋은 글들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한 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散錄外篇」, 「雜錄」, 「文」, 「雜著」, 「唱酬」, 「詩」이 있는데, 먼저 「산록외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장정수에 따르면 『옥소집』 권6 「산록외편」은 1, 2의 구분이 없이 『옥소고』 「산록외편 1」과 「산록외편 2」에 수록된 177개의 기사 가운데 53편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대거 생략하였다고 한다.¹⁸⁾ 『옥소집』에 빠진 것은 주로 신변잡기에 가까운 내용이나 학술적, 교훈적 가치가 적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옥소의 의도에 부합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잡록」의 경우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 「잡록」에는 「몽기」와 「화몽」만 전하고 있어 옥소가 본디 의미한 『잡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옥소집』에는 「잡록」이라는 항목이 없으며, 「잡록」을 출전으로 하고 있는 글도 없다.

「文」은 다른 어떤 글보다 복잡하게 『옥소집』에 분산 수록되었다. 본디

18) 장정수, 「『옥소 산록』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132쪽.

초고본 「문」에는 ‘記’, ‘哀祭文’, ‘後’, ‘跋’ 등의 다양한 문체의 산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옥소집』에서는 이를 「文」이라는 독립된 글로 묶지 않고 각각의 문체에 따라 권 4의 「雜著」, 권 8의 「序」, 권 9의 「記」, 권 10의 「題跋」, 권 11의 「告文」과 「祭文」, 「哀辭」, 그리고 권 12의 「庭碑銘」, 「墓碣銘」, 「墓誌銘」, 「墓表」, 권 13의 「行狀」과 「遺事」, 「傳」 등에 수록하였다. 이처럼 초고본의 「文」이 『옥소집』에서 여러 권으로 흩어진 것은 그것의 문체가 단일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하겠다.

「雜著」 또한 「文」과 마찬가지로 ‘祭文’, ‘銘’, ‘告文’, ‘祝文’ 등 다양한 문체의 글이 섞여 있다. 『옥소집』에서는 이 글들을 권 2의 「賦」와 권 3의 「啓」, 권 4의 「雜著」와 권 9의 「記」, 권 10의 「題跋」과 「銘」, 「贊」, 권 11의 「告文」, 「祝文」, 「祭文」, 「哀辭」, 권 12의 「墓誌銘」, 권 13의 「遺事」 등에 각각에 해당하는 문체의 글들을 수록하였다.

앞서의 글들과 마찬가지로 「唱酬」 또한 좋은 작품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하였으나, 『옥소집』에서는 초고본 「(朋遊)唱酬」에 있는 작품을 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詩」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옥소는 「산록내편」에서 「시」에 대하여 13권 가운데 스스로 골라내어 만든 7~8권을 다시 고르고 골라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옥소가 골라내어 만든 7~8권으로 된 「詩」는 전해지지 않고, 옥소의 시로만 구성된 옥소 만년의 자편문집 『玉所稿』 「上」과 「中」이 전해지고 있다. 『옥소집』은 바로 옥소의 자편문집 「상」과 「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즉 『옥소집』 권1, 권2의 「詩」에서는 「상」에 수록된 218제 중에서 204제를 수록하였으며, 「중」에 수록된 157제 중에서 129제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상」과 「중」에 수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서도 『옥소집』의 「시」에 28제가 수록되었다. 그런데 『옥소집』의 「시」는 여러 곳에 걸쳐 작품의 수록 순서가 어긋나 있다. 초고본 『옥소고』의 詩稿와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은 詩體를 가리지 않고 창작시기 순으로 작품을 배열하였다. 그런데 『옥소집』 권1과 권2에 수록된 시의 순서를 보면 뒤죽박죽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옥소집』에 수록된 시의 출전을 배열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 124제(제1제~제132제) → 「시 8」 2제 → 「시 3」 2제 → 미상 2제 → 「시 13」 5제 → 「시 14」 1제 → 미상 3제 → 「시 8」 2제 → 「중」 16제(제1제~제18제) → 「상」 80제(제133제~제218제) → 「시 8」 2제 → 「중」 70제(제19제~제100제) → 「시 8」 1제 → 「중」 52제(제102제~156제) → 「정략록」 2제 → 「시 5」 1제 → 미상 5제 → 「중」 1제(제157제)'. 이처럼 『옥소집』에서는 「상」과 「중」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수록하면서도 중간에 수록 순서가 어긋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편집의 잘못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옥소가 따로 분류해 두라고 한 「散錄內篇」과 「雜儀」, 「雜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장정수에 따르면 『옥소집』 권5 「산록내편 1」에는 140개의 기사가 있으며, 권 6 「산록내편 2」에는 총 78개의 기사가 실려 있다고 한다. 그중 「산록내편 1」의 1~112번까지의 기사는 초고본 『옥소고』 「산록내편 1」에 있는 185개의 기사 가운데 순서대로 발췌한 것이며, 나머지 28개의 기사와 『옥소집』 「산록내편 2」의 78개의 기사는 초고본 『옥소고』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초고본 『옥소고』에 없는 106개의 기사는 현전하지 않는 초고본 『옥소고』 「산록내편 2」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⁹⁾ 결국 『옥소집』은 『옥소고』 「산록내편 1」의 60% 정도를 수록하였으며, 『옥소고』 「산록내편 3」에 실린 54개의 기사는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반면 현전하지 않는 『옥소고』 「산록내편 2」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106개의 기사를 수록함으로써 「산록내편 2」의 대강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雜儀」의 경우 『옥소고』 「잡의」에 있는 대다수의 글이 『옥소집』 권7 「잡의」에 그대로 실려 있으나, <黃江驛村大洞契券序> 등의 동계(洞契)와 관련된 글이 다수 누락되었다. 비록 누락된 글이 여럿 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동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옥소의 삶과 문학, 학문을 이해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19) 장정수, 「『옥소산록』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옥소 권섭의 세계 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321, 132쪽.

「雜識」는 ‘雜識示兒曹’라는 내제(內題)에서 보듯이 집안 아이들이 익혀야 하는 기초 교양 지식을 기록한 것인데, 『옥소집』에는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잡지」 전체가 누락된 것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옥소가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程式」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옥소는 자신의 글을 첫째, 초고본 「옥소고」에 정리한 그대로 두거나(「산록내편」, 「기몽」, 「화몽」, 「가곡」, 「유행」, 「문답」, 「묘산」, 「정각」, 「필찰」, 「추명」) 둘째, 좋은 글들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하였다.(「산록외편」, 「잡록」, 「문」, 「잡저」, 「창수」, 「시」) 셋째, 그리고 그 외의 글들은 문집에 수록하지 말고 별도로 전하거나(「산록내편」, 「잡의」, 「잡지」) 넷째, 그것도 아니면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하였다.(「정식」)

그런데 석인본 『옥소집』에서는 이와 같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옥소가 문집에 남겨두라고 한 것 가운데 「기몽」, 「화몽」, 「가곡」, 「추명」, 「추명」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으며, 그 외의 글들은 초고본에 있는 작품들을 상당수 누락하였다. 그리고 「묘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글이 합쳐 하나의 글을 이루는 형식으로 된 것인데, 『옥소집』에서는 「묘산」에 수록된 글을 문체에 따라 분산 수록함으로써 「묘산」 특유의 형식미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좋은 글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한 글의 대부분은 『옥소집』에 분산 수록되어 있다. 다만 「잡록」과 「창수」에 있는 글만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는데, 그중 현전하는 「잡록」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에서 언급한 「잡록」과는 다른 것이었다. 「시」의 경우에는 옥소의 자편문집 「상」과 「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실리지 않은 20여체를 다른 詩稿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는데, 작품의 배열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편집상의 오류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옥소가 문집에 수록하지 말고 별도로 전하라고 한 것 가운데 「잡지」는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반면, 「산록내편」과 「잡의」

에 실린 글은 『옥소집』에 꽤 많이 수록되었다. 그리고 옥소가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정식」은 옥소의 구상대로 『옥소집』에는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옥소집』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기몽」이나 「화몽」과 같이 초고본 『옥소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으라고 하였지만 『옥소집』에 모두 누락한 것도 있었다. 산문의 경우에는 여러 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옥소집』에서는 문체별로 모아서 수록하였는데, 「묘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편집 방식이 특유의 형식미를 잃게 하였으며, 「정각록」과 같이 ‘건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모인 글을 문체에 따라 쪼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든다. 결국 이러한 편집 방식은 옥소가 「산록내편」에서 언급한 문집 편집 구상과는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옥소집』에는 옥소의 국문문학과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으며, 옥소의 문학예술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꿈과 관련된 글과 그림이 하나도 없다. 이는 석인본 『옥소집』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소집』에 누락된 것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옥소집』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옥소집』은 필사본으로만 전하던 옥소의 글을 최초로 인쇄본으로 간행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옥소집』에는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서 찾을 수 없는 글을 많이 전해주고 있다. <표 2>에서 그 출전을 ‘미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들은 『옥소집』 간행 당시에는 전해지고 있었으나 그 후에 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옥소집』이 없었다면 <표 2>에서 출전을 ‘미상’으로 표시한 작품들은 현재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편집상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 옥소는 『옥소고』의 여러 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문체별로 모아서 수록하였는데, 이런 경우 옥소의 글을 문체별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한 점이 있다. 초고본의 「문답」에서는 한 사람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었는데 『옥소집』에서는 이를 한군데로 모아서 오랜 시간에 걸친 편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결국 『옥소집』은 『옥소고』에 비하여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을 충실히 수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옥소의 글을 최초로 간행한 문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전하는 『옥소고』에 없는 내용도 수록함으로써 옥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깊게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초고본 『옥소고』 「산록내편」의 기록을 근거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 20세기 초에 후손들에 의해 간행된 석인본 『옥소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II장에서는 「산록내편」의 기록을 토대로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옥소는 40여 권 19종에 달하는 자신의 글을 7가지로 분류한 뒤에 각각의 편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인데, 이는 다시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는 먼저 초고본에 실린 다음의 글은 그대로 둘 것을 명하였는데, 「기몽」, 「화몽」, 「가곡」, 「유행」, 「문답」, 「묘산」, 「정각」, 「필찰」, 「추명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초고본에 있는 다음의 글은 좋은 글들만 골라낼 것을 명하였는데, 「산록외편」, 「잡록」, 「문」, 「잡저」, 「창수」, 「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초고본에 있는 다음의 글은 문집에 실지 말고 따로 분류해 두라고 하였는데, 「산록내편」, 「잡의」, 「잡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옥소는 초고본의 「정식」은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옥소가 「산록내편」에서 언급한 19종의 글이 대부분 초고본 「옥소고」에 남아 있으며, 거기에 언급하지 않은 「사고」·「사집」 등의 글도 전하고 있었다.

III장에서는 1938년에 석인본으로 간행된 『옥소집』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3권 7책으로 구성된 『옥소집』은 옥소의 문집 편집 구상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 옥소가 문집에 그대로 남겨 두라고 한 「기몽」, 「

화몽, 「가곡」 등의 글은 『옥소집』에 하나도 수록되지 않은 반면 모두 버려도 좋다고 한 「정식」은 『옥소집』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시」의 경우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몇몇 작품을 추가 수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작품의 배열 순서가 어긋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묘산」이나 「정각록」에 수록된 글을 문체별로 재분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옥소를 드러내는 주요 특성이기도 한 꿈과 관련된 글과 그림, 그리고 옥소의 국문문학 전체가 누락된 것은 『옥소집』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소집』은 필사본으로만 전하던 옥소의 글이 최초로 인쇄본으로 간행된 문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현전하는 초고본 『옥소고』에 전하지 않는 상당수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이창희·장정수·최호석 편, 『玉所稿(영인)』 1-17,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권 섭, 『玉所集』, 193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 문경새재박물관 엮어 옮김,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민속원, 2008.
- 이창희 역,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옥소의 꿈세계』, 도서출판 다운샘, 2003.
- 이창희·장정수 역, 『옥소 산록』, 도서출판 다운샘, 근간.
-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7.
- 이창희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도서출판 다운샘, 2007.
- 이창희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도서출판 다운샘, 2009.
-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권혁대, 「玉所 權變의 漢詩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권희, 「玉所 權變의 漢詩文學 研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상희, 「玉所 權變의 「遊行錄」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황경일, 「玉所 權變의 山水 散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수진, 「조선시대 간본문집의 편집경향」, 『규장각』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 김수진,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추이와 그 특징」, 『어문연구』 41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 김수진,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대한 탐사」, 『서지학연구』 68, 한국서지학회, 2016.
- 김영진, 「조선조 문집 간행의 제양상」, 『민족문화』 43, 한국고전번역원, 2014.
- 김형수, 「조선시대 문집편찬과 간행배경」, 『조선사연구』, 조선사연구회, 2019.
- 심경호, 「조선 문집 간행의 경위와 편찬 체제에 대한 일고찰」, 『민족문화연구』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 심경호, 「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한국문화』 72,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 이준규, 「간재집과 간재학과 문집체제의 특징과 그 의미」, 『동양한문학회』 58, 동양한문학회, 2021.

- 장정수, 「『옥소 산록』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 정진웅, 「조선시대 자편문집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44, 한국서지학회, 2009.
-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古小說 研究』,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 최호석, 「『玉所稿』所載 夢晝의 製作에 대한 研究」, 『역사민속학』, 28,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최호석, 「여행의 즐거움—옥소 권섭의 산수 기행」, 『온지논총』, 21, 온지학회, 2009.
- 최호석, 「옥소의 문집 편찬 구상과 「시 상」·「시 중」에 대하여」,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문경』,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 최호석, 「옥소의 자편문집 『옥소고』 「상」·「중」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85, 동양고전학회, 2021.
- 황위주,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간행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Abstract

The editorial concept of Okso's collection of writings and the publication of Okso Collection.

Choi, Ho-suk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editorial concept of Okso's collection based on the records of the ultra-high edition 『Oksogo』 『Sanrok-naepyeon』, while reviewing the editorial concept of Okso's collection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II, we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ultra-high version, 『Oksogo』, based on the records of 『Sanroknaepyeon』. Okso said that there are 19 kinds of his writings in 40 volumes in 『Sanrok-naepyeon』, and most of these writings are handed down in the existing ultra-high version of 『Oksogo』. He suggested seven ways to edit a collection of writings with his own writing, which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four. First, leave the text in the draft as it is. The corresponding writings include 『Gimong』, 『Hwamong』, 『Gagok』, and so on. Second, pick only good articles from among the writings in the ultra-high text. The corresponding writings include 『Sanrokoepyeon』, 『Mun』, 『Poetry』, and so on. Third, although it is written in the first draft, it is classified separately without being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writings. The corresponding writings include 『Sanroknaepyeon』, 『Japui』, 『Japji』. Fourth, throw them all away. The corresponding article here is 『Jeongsik』.

Chapter III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Oksojip』 which was

published in 1938 in 13 volumes and 7 books. There were many parts that went against Okso's plan to edit Okso's collection of writings, and articles such as 「Gimong」, 「Hwamong」, and 「Gagok」, which Okso told me to leave them in the collection, were included in 『Oksojip』, while they said it was okay to throw them all away. And in the case of 「Poetry」, the arrangement order of the works was often out of order, and in some cases, the writings included in 「Myosan」 or 「Jeonggakrok」 were reorganized by style to und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text. And the omission of the entire Korean literature of Okso is a factor that lowers the value of Okso collection. Nevertheless, 『Oksojip』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printed collection of Okso's writings, which were only handed down as manuscripts, and is valuable in that it contains a considerable number of writings that are not handed down in the current ultra-high version 『Oksogo』.

keywords :

Okso, Kwon-seop, 『Oksogo』, 『Oksojip』, The draft version, self editing anthology, A lithograph.